

## < 왜 고난을 당하셨나? >

이사야 53:4-6 / 새찬송가 147 (통일 136) 거기 너 있었는가

### 1.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에 감춰진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형벌의 끔찍한 걸모습’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눅23:35-39). 그러나 십자가는 걸모습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본질은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승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골2:13-15).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걸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본질을 봐야합니다.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걸모습이 아니라 나의 감춰진 참 모습, 내 안의 감춰진 가능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내 걸모습이 질병과 고난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움트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걸모습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도 내 속에 감춰진 모습은 죄에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악을 제거하지 못해 파멸의 기운이 움트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 2. 악을 제거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율법의 정의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희생으로 이뤄집니다

나의 죄를 남이 담당하는 것은 율법의 정의를 어긴 것입니다(겔18:19,20). 그러나 누군가 내 죄를 담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일이나 내가 남의 죄를 담당하겠다고 자원하는 일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보다 정의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즉 사랑의 희생은 율법의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부모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런 부모의 사랑은 정의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없애는 일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점철되어 있는 십자가 은혜로만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율법의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의 희생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율법의 정의의 눈으로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주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인 십자가는 일대 일의 역사가 아니라 일대 다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실로 위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요12:23,24).

### 3.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주어지는 진정하고도 현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사 53:4,5).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 나를 위한 고난이십니다. 즉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의 평화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병 고침을 위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깊이 깨닫고 확신하면 ‘깨닫기 이전에는 가능성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고 확신을 얻었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확신의 증거는 첫째는 놀람과 의아함이고 둘째는 감격과 감사요 셋째는 죄송함과 기쁨이요 넷째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입니다(새찬송가 151(통138)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적용&실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죄와 나를 죄 짓게 하는 악을 없애시려고 내가 받을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고난에 동참합시다.